



HOME > 지역 > 충남

농어촌공사 청양지사, 저수지 녹조 제거 나서

✎ 박대항 기자 | ⌚ 승인 2022.09.25 12:10

|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저수지 생태 보전



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(지사장 김남표)가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아름다운 저수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녹조제거에 나섰다. 사진=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제공

[청양]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(지사장 김남표)가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아름다운 저수지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녹조제거에 나섰다.

청양지사는 서남부권역 관리 지사인 보령, 부여, 서천지사 합동으로 청양군의 관

광명소인 칠갑저수지를 찾아 녹조제거를 위한 녹조방제 훈련을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.

녹조제거 살포에 나선 농어촌공사팀들은 살포와 함께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및 녹조발생의 원인을 전파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했다.

김남표 지사장은 "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아름다운 칠갑저수지 광관명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수질 및 환경보호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"고 밝혔다.



박대항 기자 pdh4112@daejonilbo.com

저작권자 ©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